

대나무총판

1(질문자) 2(전문가)

1: 질문 드리기전에 연령대랑 종사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2: 50대

1: 종사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2: 28년

1: 그러면 이 기업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2: 총괄이지 뭐 일도 하고 주문도 받고 그러면 그 서류도 정리하고

1: 그러면 생산 물류 이런 것 중에 어떤 부분에서 참여하고 계신가요?

2: 그런 부분이 애매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1: 네 알겠습니다.

2: 다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일을 가족경영이다보니까 인부는 직원은 몇 명 없으니까 일을 다 하지 썰고 뭐하고 다하지

1: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 들어가보면 원자재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공급받고 계십니까?

2: 이 담양쪽은 거의 다 중간도매야

1: 중간 도매가 뭐죠?

2: 젊은 친구가 직접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우리한테 파는거지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할때는 우리 거 대나무를 베는데 거의 한 80퍼센트는 중간도매라고 보면 돼

1: 중간 도매면은 담양지역에서 생산된 대나무 입니까?

2: 아니지 이제 그

1: 그럼 수입산입니까?

2: 아니 다 100퍼센트 국산인데 수입은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안해 물류비용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아무리 현지 중국걸 썼는데 중국에서 생산 원가 인건비 모든게 올라가가지고 우리하고 맞질않아. 오히려 더 비싸

1: 아 중국이?

2: 그렇지 코로나 때 이후로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고 안맞아

1: 그러면 대나무 조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2: 많지

1: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2: 3D업종이라 많지 왜 그러냐면 그냥 인력 드물어 인력수급이 힘들어 제일문제가 인력수급 농촌 문제가 인력수급 그리고 3D업종이라 힘드니까 장기간 오래 못있고 오래있어야 되는데 오래 못있지 사람이 외국인 많이 쓰지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래도 힘들지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중국은 모든것이 기계화가 거의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가려면 아주 힘들지.

1: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이거는 품질관리라는 개념이 없는데? 대나무는 주로 우리가 조경회사, 인테리어 그다음에 식자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약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하기는 좀 애매해 품질관리를 특별하게 하는게 없어요.

1: 그러면 혹시 저번에 건조과정..

2: 이제 건조 과정을 하지 건조 과정은 이제 특별하게 필요할때 예를 들어서 저런(뒤편 가

리키며)완성품을 나갈때 완성품을 나갈때 곰팡이 같은거 안끼게끔 건조하고 가공하고 그러지 그건 하지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니까?

2: 주문 오면은

1: 그냥 직접하시는 겁니까?

2: 그렇지 주문하면 직접 제작해가지고 택배로 배송하지 양이 많을 때에는 이 화물로 배송하고 대나무는 꼭 필요한 사람만 주문을 하기 때문에 대나무의 성질을 다 잘알아요

필요한 사람만 이게 막 쿠팡처럼 그런 대단한 물류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만 쓰기 때문에 뭐 그게 특별하게 그런 영향을 못받지.

1: 그러면 현재 마케팅을 위해서 홍보나 활용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2: 일단 홈페이지는 하나 있고 그거 외에는 없어

1: 유튜브브라던지 그런건 없습니까?

2: 그런건 없어

1: 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 일단 경력이 아니 꾸준한 오래 해서 기본적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을 받쳐주니까 굳이 유튜브나 아까 뭐라 그런 걸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홈페이지만 간단하게 하는거지

1: 그러면 제품 판매 후에 고객 지원이나 사후 서비스는 혹시 제공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2: 이게 아니 반영구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테리어 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 이것도(뒤편을 가리키며) 지금 이것도 이제 건축 자재로 나가는데 일회용이야.

완벽하게 사후 서비스를 해본 적이 없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지.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휴대폰을 사면은 3년 4년 5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나무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쓰면은 해주는데 그런 용도로 거의 나가지는 경우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대로 가면은 그 가게가 망하기 전까지 뜯어낼 일이 없잖아.

에어컨 히터를 틀기 때문에 별로 그 대나무 인테리어가 망가지고 그 썩는 그런 건 아니거든 썩어야 교체를 해 줄 거 아니야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틀고 히터를 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거의 못 받아 의미가 없어 사 올 사람도 없어 해주는 사람도 없고

1: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 대나무 산업 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게 있으신지

2: 그런거 없어

1: 그냥 안받으시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아예없지

1: 애초에 정부 지자체 지원금 같은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건가요

2: 정부건 없지 지자체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거의 지금은 없지

1: 혹시 왜 없는것일까요

2: 일단 대나무 산업이 많이 사장되고 있고 옛날에는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는 막 바구니 갖고 쓰고 막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전에는 그 이후로는 산업화가 돼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성도 못 느끼지 군에서

1: 그러면 대나무 산업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고 보시는지

2: 아니야 이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게 뭔가 체계를 잡아 갖고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나도 자꾸 건의를 하는데 이게 왜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 정보지나 조달청이나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1: 물가랑 조달이요?

2: 조달청이나 물가 정보지 같은 거 하면은 소비자들 보기 쉽잖아.

근데 안 하더라고

1: 그러면 대나무 산업 관련 정보나 데이터 접근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2: 많지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나무 관련된 책이 엄청 많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이제 이제 군에서 자체 발간한 서점에 배포하지 않는 비매품은 있지.

대나무 관련된 여러 가지 용도는 있겠지만 이 상업적으로 대나무에 관련된 책을 나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일본은 엄청 많아. 일본을 내가 직접 많이 가봤으니까 알지 사정을 일본은 많은데 우리나라는 없어.

상업적으로 대나무가 뭔가 대나무에 뭔가 산업성이라든가 작품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 그런 책은 못 봤어.

1: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인력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2: 일단 일이 힘드니까 안 오지 그리고 야간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오지.

주로 외국인들은 야간 일을 해야 수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그런 공장을 많이 가지.

3교대 같은 경우 2교대 같은 경우 그런 데 가야 돈을 버는데 우리는 밖에서 일하니까 뜨겁고 춥고 그러니까 많이 오래 못 있지

1: 아 야간도 안하니까

2: 야간 할일이 뭐있어 야간에 하겠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1: 단점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이게 대나무가 3D 업종인데 우리나라에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짜장면 가게는 수만 개 수만 개잖아 대나무 가게는 몇 군데 없어 이게 장점이라는 것은 가족 경영해도 특별하게 뭐 어려움 없이 먹고 사는 데는 제작 없지 가족 경영을 해도 다른 업체는 모르겠는데

1: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역량강화를..

2: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기업도 아닌데 그런 건 없지 안 다치고 안 다치고

1: 안전교육같은..

2: 그렇지 안 다치기만 하면 돼. 그거 외에는 여기서 할 것이 없어요. 톱을 쓰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로 안 시키죠.

인부한테 주의를 많이 하지. 안전 교육 같은 경우

1: 대나무 육림 기술 및 가공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2: 다른나라에 비해? 완전 짱이지 중국 따라가려면은 세 발의 피지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

중국 기계 같은 거 막 해갖고 보잖아. 원래 우리가 다 가르쳐줬어.

중국한테 대나무 거기 빼는 거 뭐 살 빼는 거 다. 근데 지금은 중국은 자원이 많으니까 맞지 자원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아?

합판 같은 대나무 붙여가지고 유럽으로 거의 수출하고 다 돌지.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지.

1: 자원이 없으니까

2: 자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원이 많아야 대나무로 옷도 만들고 섬유도 빼고 그래.

근데 자원이 없으니까 못 하겠어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왔어.

자원이 대나무 섬유도 있고 대나무 종이도 있고

1: 맞습니다.

1: 그러면 제품 다변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 같은거 하고 계시나요?

2: 우리 개인적으로는 안 하지 이제 담양군에서는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대나무 자원연구소라고 있었는데 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특별하게 하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게 문제지 이거는 저기가 하고 있지 저기 어디더라 어디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를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나무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 특별하게 노력한게 없는데 여기는 결국 자기 대밭을 확보 할 수 밖에 없는데

1: 공장 소유의 대나무 밭이요

2: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밭이 많이 있어 있긴 있는데 결국 안정적인 공급은 중간 상인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는 방법밖에 없어.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어차피 대나무 3년마다 비니까.

1: 그러면 이렇게 대나무 생산하는데 기계 설비 같은걸 도입 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2: 이거는 많이 있지. 근데 일단 여러 개의 기계를 쓰는 거하고 이거는 특수하게 대나무만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비도 비싸고 또 상대성이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기계를 쉽게 못 맞추지 공급이 되면은 수요가 많으면은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도 전부 다 중국은 올 자동화야.

지금 혹시 상갓집 가봤는가? 모르지만 상갓집에 쓰는 젓가락은 올 중국산이야.

그런 것도 다 자동화를 해 갖고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안 만들지 그 차이지 이게 기계는 특별하게 이제 만들 생각도 없지만은 이런 이런 제품 만드는데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겠지.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그래서 이제 만들었지. 근데 이제 반가공이지 내가 손을 봐야 되고 자동 기계는 아니고 반 가공 이게 담양이 거의 반 가공이 많다고 보면 돼요.

1: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2: 이거는 그냥 간벌만 많이 하지. 간벌 많이 자주 베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별로 안 하는데 자기가 잘 자라니까 대나무는 간벌만 잘 하면은 꾸준히 대가 좋아지기 때문에 간벌을 많이 해요.

1: 혹시 그 아까 빠졌던 질문 중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롭게 개발되거나 시도 중인 제품 분야가 있습니까?

2: 이걸 거의 안 해 담양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해. 할 수가 없어.

해봤자 의미가 없어. 판매가 안 되니까. 대나무 제품은 모든 제품은 옛날부터 있었던 제품, 이미 나왔었던 제품만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해. 생산을 하고. 예를 들어 젓가락, 숟가락, 튀김, 김밥(말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하지.

특별하게 내가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거의 없지.

1: 아 전부터 해오던걸

2: 해오던 거나 누가 의뢰한 거나 해주지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지는 않아요.

‘이거 이거 해 보세요. 이거 좋습니다’ 하고 그런 제품은 담양에 거의 없어 이미 나왔던 제품 갖고 계속 파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1: 네 근데 그럼 새롭게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새롭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옷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

옷은 새롭게 만들려고 자꾸 시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대나무는 그런 환경도 안 돼 있고요.

이미 모든 다른 제품에 비해 경쟁성이 없잖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나 그런 거에 제품은 경쟁력이 없잖아.

그게 꼭 대나무는 필요한 사람만 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시제품을 안 만들어도 나가긴 나가 는 거야.

이해했지?

1: 네 그러면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그 앞장에서 잠시만요. 아까 지자체 이야기 하실때 조달청입니까?

2: 아니 아까 그게 뭐야 아까 뭐지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이거는 대나무 산업의 표준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가 정보원이나 조달청이나 보면은 규격화된 제품을 다 팔 때는 그 가격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1: 아 평균 가격

2: 그렇지 선품기를 하면은 선품기 가격이 다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거의 조달청 단가를 보고 선품기를 매입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나무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

예를 들어 4cm 1m는 얼마다 5cm 1m는 얼마다 이렇게 규격화돼 되면은 이를 판매 단가가 싸지면은 소비자도 편하게 받기 좋고 관공서도 받기 좋고 그런 제가 체계가 없으니까 표준화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야.

솔직히 내 마음이야 마음에 들면은 싸게 팔고 원가도 안 남을 때는 그래도 팔 수도 있고 내 마음이지 왜 규격이 없으니까.

근데 a4 용지는 거의 판매할 때 규격이 있잖아. 이게 얼마에 얼마 거의 규격이 똑같잖아 가격이 똑같잖아.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을 수밖에 없어. 대나무는 그게 힘들어.

예를 들어서 보온 병 쿠팡에서 사 근데 지마켓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쿠팡이 비교를 해서 사잖아.

그러면은 이걸 만 원 근데 지마켓은 9천 원 그러면 소비자들은 뭐야 9천 원짜리 사잖아 똑 같은 품종이면은 담양은 그렇게 대나무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관리가 힘들지.